

“시민 불편 없게”...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만전

5개 자치구, 신청·지급창구 운영...찾아가는 신청서비스·온라인 홍보 ‘전담 TF팀’ 구성...지급상황 모니터링 후 미신청자 유선·방문 안내도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전담팀을 꾸리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8일 소비쿠폰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관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한시 채용해 신청 첫날부터 접수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구청 효죽공영주차장 2층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괄 운영실’을 조성하고 5명 안팎의 인원이 이의신청 처리,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각종 민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방문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별 통장단의 인적 홍보와 구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주민 홍보도 이뤄진다.

북구는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면 소비쿠폰 지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광산구도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창구를 운영한다. 초기 2주 간 인력 투입을 집중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나선다. 소비쿠폰과 연계해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도 모색한다.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선보인 ‘생활정부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선8기에 도입한 ‘거점동-연계동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하는데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뒀던 만큼, 각 거점동장을 TF단의 ‘현장지원실장’으로 임명해 연계동을 총괄 관리하는 등 주민 중심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서구는 소비쿠폰 전용 콜센터도 운영, 전화상담 및 방문 민원 안내를 제공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대면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찾아가는 착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동별 복지

도우미 등 가용 인력으로 투입해 고령자, 취약 계층 등 신청 취약대상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구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0여명의 공무원을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순환 투입하고 구청에 별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으며 소비쿠폰을 신청한 날 즉시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21일부터 2차 지급 완료일인 10월 31일까지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 7층 소회의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도 마련한다.

동구는 13개 동마다 전담 보조 인력을 1~3명씩 배치하고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의 문의와 불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창구도 동시 운영할 방침이다.

동구에 주민등록(6월 18일 기준)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 주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1차로 전국민 1인당 15~40만 원을 우선 지급되고, 2차로 9월 22일부터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된다.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초복맞이 복달임 “어르신들 건강하게” 광주시 서구는 16일 광주시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시니어레스토랑에서 센터 이용어르신들에게 초복 맞이 복달임 무료특식 봉사를 실시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수완동 골목에 온기를” 광산구, 지역기업과 맞손

11곳과 상권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시 광산구는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완동 상인연합회, 11개 기업과 함께 수완동 지역 상권 활성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임직원들이 수완동 상점(연합회 참여업체)을 적극 이용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함께 살리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협약에는 수완상인연합회를 비롯해 화천기공㈜, ㈜세방산업, ㈜서진산업, ㈜LG이노텍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와 각 단

체,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정보 공유, 노동자 소비 촉진 등을 진행한다.

광산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사내 홍보 채널을 통해 상권 정보 안내와 임직원들에게 소비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협약 상점에서는 해당 기업 직원에게 연합회 할인(10%) 혜택도 제공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이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실질적 협력과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임차 소상공인 대상 8월부터 카드수수료 지원

광주시 남구가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남구는 오는 8월부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2억원으로, 해당 자원은 전액 구비에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임차 소상공인이며, 전제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업체당 30만원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와 구청에서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더운 여름 북구 도서관에서 쉬어가세요”

5개 구립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가 도서관에서 더운 여름을 피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5개 구립도서관(신용·양산·운암·일곡·중흥)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영화),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와 독후활동을 제공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K·사회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주제로 하브루타 토론과 미니 법정 놀이 등을 만날 수 있고, 양산도서관은 명화 감상, 자화상 그리기 등으로 구성된 ‘명화 속 세계로 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암도서관은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듣고 직접 요리도 체험하는 ‘편의점을 털면 세계가

보인다!’를 운영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별별 이야기, 별별 여행’을 주제로 별자리에 대한 강의와 별자리 키링·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생활 속 과학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는 ‘신나는 과학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 독서교실’ 종료 후에는 도서관별로 시상식을 개최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별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중·고·대학부대 성인까지 주민들의 연령별 수요에 맞는 레진 공예·사주명리·다도 체험·모기 기피제 만들기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자는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 중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